



技術力 培養에 注力

(주)대우

최근 UR 협상이 타결되면서 세계는 본격적인 지구촌 경쟁시대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내 원자력산업도 개방이 불가피해됨에 따라 원전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주)대우로서는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

새로운 개방의 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 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차원에서 국제화 및 기술개발만이 선진외국 기술의 종속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인식하에서 (주)대우의 금년도 원자력사업 추진에 대한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펼치고자 한다.

지난 93년 8월 월성 3, 4호기 기초굴착공사의



월성원자력 3호기 토목공사

착수 이래, 금년 1월중 건설허가 취득 후 본관건물 신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건설사상 최단공기, 최고품질의 목표를 가지고 철저한 시공준비업무를 통하여 당초보다 단축된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획 대비 실적이 앞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월성 3, 4호기를 기준으로하여 Software 관리향상을 위하여 독자적인 사업관리 전산화체계 개발로 공정, 공사비, 자재, 자료관리 분야의 System을 구축하여 발전소건설 표준화 수립으로 품질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원전건설의 품질확보를 위해 매 3년마다 갱신 유지되고 있는 ASME CERIFICATE(NA, NPT)도 금년 1월중에 재취득 후 품질체계를 유지하고, 지난 93년 7월에는 국제표준화기구 기술분과위원회에서 제정한 품질보증 국제 표준규격인 ISO 9002를 취득하여 품질경영능력을 인정받는데 이어 올해에는 설계, 서비스분야까지 포함한 ISO 9001을 취득하여 일반산업분야에도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의 관리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금년중 원전보수를 위해 취득해야 할 Nr Certificate도 준비팀을 구성, 자격을 취득하여 발전소 건설에서 보수분야까지 참여할 수 있는 고품질체제로서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설계분야에서도 컴퓨터를 이용, CAD-3D 설계 건설지원 System을 개발하여 현장설계 자동화의 기반을 이루며 현도, 자재물량관리, 시공 Schedule 등의 전산화로 Manhour 절감 및 현장설계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며 Modularization등 공기단축 공법개발, Integrated System Architecture 구축을 위한 기초 확보로 향후 통합설계관리 체계의 구축을 통해 장래의 원전사업이 지향하는 새로운 통합정보망 확충의 기반기술로서 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대우는 93년 무재해 결의대회 개최 후 현장 및 본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노동부

선정으로 산업안전 보건대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올해는 「무재해 원년의 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원자력 현장은 타 현장과 달리 많은 인원, 긴 공사기간, 좁은 작업공간 등 특수한 여건 속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각 분야에서 본격적인 공사에 대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특히 안전관리는 모든 것에 최우선으로 준비 확인하여 근본적인 재해발생요인을 제거, 빈틈없는 시설상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근로자가 함께 노력할 것이다.

건설시장개방에 따른 외국 선진 건설업체의 진출로 엔지니어링 등 기술력과 자금력에도 우리나라 산업이 열세에 있는 만큼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를 금년부터 2000년까지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기술개발비로 책정, 전문기술육성 및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여 원자력분야도 하드에서 소프트웨어로 턴키수주능력을 갖춘회사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며 이젠 GENE-CON(General, Contractor)의 차원을 넘어 EC(Engineering & Construction)화의 단계로 진입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관리혁명, 기술대우, 세계경영으로 이어지는 (주)대우는 이제 21세기 초일류 국제화 기업을 목표로 새로운 차원의 세계화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한경쟁으로 일컬어지는 국제경영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경제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자 자본, 기술, 노동 등의 경영요소를 유기적으로 묶어 경영전략의 세계화와 경영활동의 현지화를 추진하는 국제화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지구촌을 산업기지로,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주)대우는 경영의 모든 요소를 세계수준에 맞추어 가는 세계경영을 통해 한민족 경제의 활로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